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룯기 ☉

이삭 줍는 룯

(룯기 2:1-3)

룯기는 모세오경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주 읽는 성경책입니다. 룯기는 진정 위로의 책이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 현실을 직시하는 룯

룯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낫선 땅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룯은 자존심을 버리고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룯은 시어머니에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합니다. 구걸을 해오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논과 밭의 곡식을 다 거둬들일 때 조금씩 흘려 놓도록 합니다. 그것은 고아, 과부, 그리고 걸인들이 주워 먹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본래 부자집 며느리였던 룯에게 이삭 줍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룯은 기꺼이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시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기꺼이 밑바닥까지 내려갈 각오를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주저 않고 들어 나가 이삭을 줍는 룯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과 회복을 배워야 합니다.

2. 항상 최선을 다하는 룯

룯은 이삭을 주울 때 꾀부리지 않으며 열심을 다했고, 마침내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전심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자들에게는 감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큰 것으로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룯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룯은 이방인을,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룯은 열심히 일했고, 보아스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만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므로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Ruth Who Picks Up Leftover Grain

(Ruth 2:1-3)

The Book of Ruth, together with the five Books of Moses, formed the parts of the Bible that Jews liked to read more than any other, and read often. The reason was that the Book of Ruth was a comforting book and a message of recovery and hope.

1. Ruth who accepted reality as it was

After Ruth left Moab, where she had lost her husband, she arrived in an unfamiliar land in Bethlehem, Israel. When we meditate on Ruth's character, we can find wonderful and spiritual lessons. She immediately destroyed her self-respect and looked for what she



박노철 목사

could do.

Ruth told her mother-in-law that she would go out and pick up leftover grain, which amounted to begging door to door. When people harvested crops from the grain and ordinary fields in the Old Testament, they would leave a little bit of the grain behind them for orphans, widows, and beggars to eat. Based on this fact, we conclude that those who gleaned leftover grain were in the lowest social stratum.

Naturally, this could not have been easy for Ruth, who was the daughter-in-law of a once rich family. But Ruth did it with pleasure, throwing away her pride because she knew that it was the only way to help her family.

The fact that she was willing to live a life of PENURY was the first step of a new beginning. We must learn about hope and recovery from the example of Ruth who picked up leftover grain without any hesitation.

2. Ruth who always did her best

When Ruth gleaned grain, she did her best without shirking her duty. Finally she was visible to Boaz. Whatever we do, what we need to do more than anything is to do our best. Whether it is a mere trifle or something more, those who do their best will be certain to move forward. Jesus said,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If we try to do our best even in small things, we will have an unimaginable chance to do more.

The words, 'Just then,' appear in verse 4 of this text.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met Ruth. This did not happen by chance, but by God's providence. Ruth represents an anti-type of Gentile, and Boaz an anti-type of Jesus Christ. While she was working hard, Boaz saw and heard how she had served her mother-in-law so devotedly and faithfully. God's marvelous work will come true when God's grace meets our best way.

My beloved Christians!

Our Lord sees us and knows us. So don't be disappointed when nobody seems to recognize your work, or when you cope with many things while doing your best in small areas.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recious children who are marvelously blessed b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섬김의 경로잔치

2월9일 수요일부예배 후 만나 홀(801호)에서

우리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사라 전도회, 은빛 찬양대 경로잔치가 2월9일(수) 열린다. 점심은 교회에서 제공하며 및 살림 권사회에 속한 70세 이상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순서와 인사의 시간이 있다.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확정

개강 : 3월 6일(주) / 접수 : 2월20일(주) 시작

3월6일(주)부터 2011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일제히 개강한다. 모든 성도들은 한 과목 이상 수강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기 바란다.

강좌	개강일	시간	담당	장소
누기복음반	3.8(화)	오전6시-7시	유문건 목사	602호
마태복음반	3.10(목)	오후7시30분-8시30분	서명철 목사	602호
룻기반	3.11(금)	오전6시-7시	박진아 목사	602호
성경통독반	3.8(화)	오전10시30-12시	문정훈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3.13(주)	오후3시20분-4시30분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3.11(금)	오후7시-8시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3.13(주)	오후3시20분-4시30분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3.8(화)	오전10시-오후1시	박종민 목사	601호
살림 경로대학	3.10(목)	오전10시-오후1시	서명철 목사	101호
선교대학	3.7(월)	오후7시-8시30분	박진아 목사	602호
마리아 학교	3.10(목)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김은숙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3.9(수)	오후8시30분-9시30분	조슈아 조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	3.6(주)	오후1시30분-3시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3.13(주)	오후12시40분-1시40분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급반	3.6(주)	오후1시-1시50분	임규현 목사	606호
수화교실 중급반	3.10(목)	오후7시-8시30분	임규현 목사	606호

2011년 전반기 장학금 수여

- 오늘 찬양예배 시간, 총 56명 선발 -

우리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전반기 장학금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오후 4시에 장학금 수여식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란다. 선발된 학생들은 총 56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

- <브리시길라 장학생> - 신학생3명-노재균 최요섭 윤상철
- <송암장학생> - 찬양대 솔리스트20명- 이대환 김연진 김수지 김소현 이영호 박나에 박승기 박세아 박주리 송호연 김승직 이아람 최영은 이실비아 강윤희 정다운 서경한 곽영화 박상현 변진
- <일반장학생> - 대학생16명- 한상희 오완근 한성애 정진영 천예은 임세영 김현지 신가현 황선영 전은주 김수경 김가현 최근우 지호환 차선혜 이가람

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로 총 5,97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 이 나라를 이끄는 기둥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디아스포라부 6명- 이영화 김향미 김필주 김영애 양진혁 전경희
- 교역자, 선교사 자녀 5명- 서윤영 노상훈 황신혜 정휘준 한세희
- 고등학생 2명- 김세준 서정우
- 호산나장애인전문대학 3명- 이사장 장학금: 최미리 학장 장학금: 노성준 부학장 장학금: 김미선
- 기타1명- 이성화

2011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가 다음세대 일꾼이에요	박진아 목사
유년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김안성 목사
초등부	2. 20 (주)~22 (화)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서명철 목사
사랑부	2.13 (주일)	서울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문정훈 목사
청년1부	2.28 (월)~3.1 (화)	아가페타운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박노철 목사 / 장석남 목사
청년2부	2.25 (금)~26 (토)	아가페타운	새로운 기쁨으로 거듭나자	박노철 목사 / 황광 목사
에바다	2.26 (토)	서울교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박노철 목사 / 임규현 목사
신혼가정부	2.12 (토)	아가페타운	성숙한 가정을 위한 신혼가정의 과제	박노철 목사 / 한상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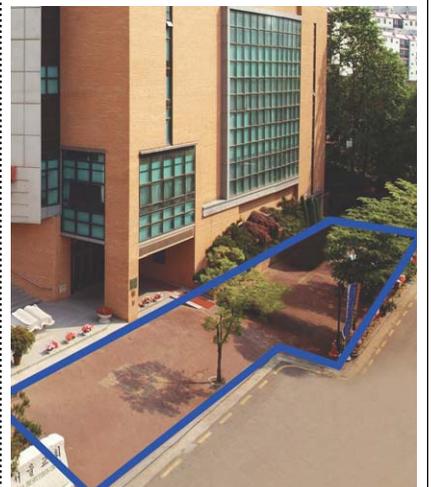
엘리베이터 이용안내

우리교회는 지난 주부터 새 가족과 노약자를 섬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모든 성도들은 이에 동참하기 바란다.

전망 엘리베이터는 2층에서 8층으로 직행하도록 하여 노약자 전용으로 이용하며, 1, 2호기 엘리베이터도 노약자와 새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특히 청장년들은 계단으로 다니도록 한다.

방문자 및 새가족 전용 주차공간 이용안내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1층 현관 앞 주차장을 방문자 및 새가족 전용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 성도들의 협력을 바란다.



제7기 설교사역도교 교육

2월6일(주일)~27일(주일)

4주간 / 오후3:30~4:30, 609호

제7기 설교사역도교 교육이 2011년 2월 6일(주일)부터 27일(주일)까지 4주간 609호에서 정수길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도교사역의 의미, 도교의 특권과 의무, 도교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교, 설교사역 도교의 중요성과 도교의 실제 등이며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성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Ephesians 1:23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회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3대 목표로 "만민에게 전도"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005년 헌당을 계기로 선포된 3대 비전 중 하나인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을 바라보며 선교사 파송에 박차를 가한 결과, 현재까지 8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소속 교단에서 파송한 전체 선교사가 천명이 조금 넘는 정도인 상황에서 개교회가 100명 파송을 추진

하는 것은 교단 차원을 넘어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상 돋보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부터 각 교회학교와 선교회, 전도회가 파송 선교사들을 후원 하는 등 교회의 기도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만들어진 20개 선교사도 고팀은 파송 선교사들을 위한 핵심적인 영적 지원군

으로서 교회의 '선교기지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순례자>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소식을 실었으며 앞으로 각 도교팀의 기도 현장을 찾아가 선교지로부터 전해오는 소식 등을 담아 격주로 게재할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아임이야기

이은준 · 강해정 선교사 (카자흐스탄)



우리가 이 자매를 처음 만난 때는 2006년 10월경입니다. 우리와 처음 만날 당시 아임은 이 도시에서부터 100킬로 떨어진 동네에서 엄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임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객실에 살며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에 있는 아임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우리의 방문을 반기워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는 '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는 회의가 있었지만 기도하며 찾아가 만나고 여름 방학에는 교회에 초청하여 성경공부도 하고 매년 열리

는 여름 수련회에도 같이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아임이 남자친구가 생기게 되면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물건에 손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 출입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서 이 아이는 남자와 교회에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후 어느 날 아임이 교회로 야밤에 도피해왔습니다. 이유인즉 남편과 싸우고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이혼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임의 남편, 박치야르가 교회에 왔습니다. 아임을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심 참 고마웠습니다. 집나간 어린 철없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교회에 왔으니 참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복양실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기 아빠의 맘이 살짝 열린 듯했습니다. 순진한 애 아빠의 모습을 보며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임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 들은 믿음이 잘 자라고 있으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아임이 주일에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아임은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시동생 줄드즈베크와 시누이 톨간야 이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함께 주일예배에 참석합니다. 결핵요양원에 있는 시누이 로자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임 한 아이를 통해서 그의 동생 두 명과 시집식구 전체(7명)와 그리고 남편의 친구, 시동생의 친구까지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황무지 같은 땅, 무슬림의 땅, 카자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더디고 느리기도 하고, 때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순박한 영혼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곳 카자 백성들을 위해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

이강진 집사(대학부부장)

- 박노철 목사님의 설교 중에 "좋은 환경이란 자녀들에게 소우가 풍족한 환경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해주는 환경이다"라는 말씀에 몽글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 지난 주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한 성도는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 못 일어난 것에 대해 부끄러웠는데, 수련회에 와서 그 의미를 깨닫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윤성지)

- 수련회 팀장을 맡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 가장 드라마틱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대학부 팀장과 선생님들의 노고를 깨달을 수 있었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를 통해 영적 갑급함과 부담을 느껴보겠다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김현지)

- 고등부 때와는 달리 선배가 팀장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내가 속한 찬양팀이 주도하여 찬양을 드리며,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팀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등 놀라운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박예담)

-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말을 통하여 나의 기도제목에 깨달음을 발견하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이동훈)

- 팀원들이 서로 모이려고 그렇게 애뜻한 심정으로 안달하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팀원들이었습니다(임연주)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이라는 주제 아래 가진

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마무리하는 간증시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상기된 목소리는 간증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 "믿음의 집"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영하 20



도에 이르는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박노철 목사님과 유문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잠든 심령들을 깨우고 성령님의 뜨거운 바람으로 영혼들을 어루만져주셨습니다. 임원들과 팀장들의 헌신에 팀원들은 감동으로 화답하며 팀별모임과 성경공부, 주제와 성구를 표현하는 사진작업, 공동체 훈련, 포레별 모임 등을 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지체의 소중함을 피부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팀과 율동팀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렸으며, 전체로, 조별로, 짝으로 드리는 기도는 통회하는 눈물로 적셔지고 위로와 도고와 헌신을 다짐하는 향기로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가는 믿음과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항상 함께 한다는 확신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대학부원들이 다음 세대에 서울교회의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심어준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재평 성도 (디아스포라부 회장)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십시오."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디아스포라부 형제, 자매들의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 독재정권 아래서 꿈도 빛도 없이 살아왔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의 땅, 희망의 땅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정신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은 새로운 힘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계속되어진 김성호 목사님의 특강은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꼭 성공해야 합니다. 왜? 꼭 성공해서 북한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된 저녁집회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큰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광일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 인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 우리 모두는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디아스포라부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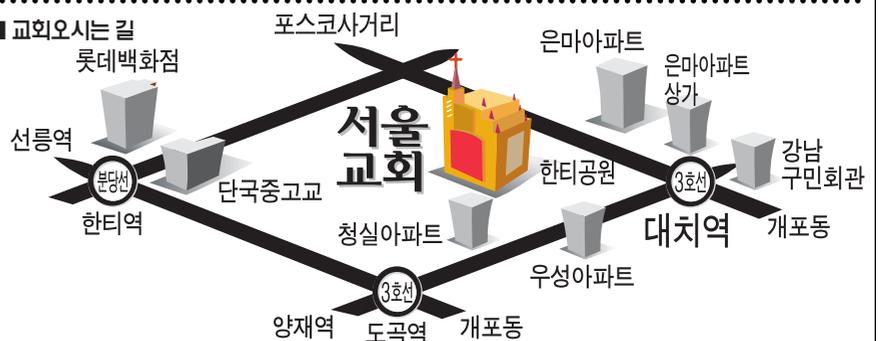
동정

- 이강진 장로 : 2.9-15 영국MMI(국제군선교회)가 주관하는 정례회의에 동아시아 군선교 보고차 참가
- 이사 : 7교구 김명숙 권사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가람 아파트 214동 301호 556-4898
- 주간식당 봉사 : 안드레선교회(2.6) 베드로선교회(2.13)
- 금주의 식사제공 : 이기범집사, 신기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 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부서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2. 신혼가정부의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젊은 가정들 되게 하소서.
3. 구제역과 조류독감을 하루 빨리 소멸시켜 주소서.
4. 북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